

심층분석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2026.05.10

심층분석보고서: 삼성선물 경영지원 직무

1장: 산업(섹터) 분석

1-1.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정의와 이원적 구조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시장본부가 부산 본부에서 운영하는 장내(거래소) 시장과, 금융투자회사·은행이 자체 카운터파티로 영위하는 장외(OTC) 시장으로 명확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장내 부문의 대표 상품은 KOSPI200 선물·옵션이며, 1996년 5월 상장된 이래 국내 최초의 장내 파생상품으로서 한국 자본시장의 헤지·차익거래·방향성 거래의 중심축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후 미니KOSPI200 선물·옵션, 코스닥150 선물·옵션, KOSPI200 위클리옵션, 개별주식 선물·옵션이 라인업에 추가되면서 주식파생 영역이 다층화되었고, 3년·10년·30년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엔화·유로화·위안화 통화선물, 금선물, 돈육선물 등 금리·통화·상품 영역까지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외 부문은 IRS(이자율스왑), CRS(통화스왑), FX 선물환·옵션, NDF, ELS·DLS 자체헤지 거래가 핵심을 이루며, 금융감독원이 2025년 6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경 6,461조원으로 전년(2경 4,704조원) 대비 7.1% 증가했고, 그중 통화 관련 거래가 1경 9,328조원으로 73.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장외 시장이 사실상 통화 헤지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1-2. 야간시장 자체 운영과 24시간 글로벌화의 의미

2025년 6월 9일 KRX의 자체 야간시장 개시는 국내 파생상품 산업의 가장 결정적인 구조 변화로 평가됩니다. 종전에는 2009년부터 EUREX 연계 형태로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선물, 위클리옵션, 미국달러선물 등 5개 종목이 야간에 거래되었으나, 자체 운영 전환으로 거래시간이 18:00~익일 06:00의 12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EUREX 연계 시간 대비 1시간이 늘어났고, 코스닥150선물, 미니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옵션, 3년·10년 국채선물 등 5개 종목이 새로 편입되어 야간 거래 종목이 총 10개로 늘어났습니다. 정은보 KRX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글로벌 경제 이벤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이경식 파생상품본부장(부이사장)은 이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자체 운영 개시 직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직전 약 57조원 수준에서 127조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시장 번복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사사 입장에서는 정규시장과 야간시장의 단일 계좌·단일 시스템 통합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IT 인프라·콜센터·미들오피스 인력 구성이 24시간 체제로 재편되었고, 이는 인사·근태·보상·총무(공조·보안·시설관리)에 이르는 경영지원 업무 전반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3. 개인투자자·해외선물 비중 확대와 디지털 전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의 보급은 201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미니KOSPI200·코스닥150·해외선물(CME·EUREX·SGX·HKEX·LME) 영역에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의미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야간시간대 미국 주식·금리·원유·금 가격 변동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해외선물 중개 매출의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삼성선물 또한 미국주식·ETF 옵션, 제로데이(0DTE) 옵션, FX마진, LME 비철금속, 중국거래소 상품군까지 라인업을 넓혀 왔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상품안내 메뉴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핵심 노출 영역으로 두고 있으며, 비대면 계좌개설·인증서 관리·다운로드센터·24시간 콜센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터(02-3707-3699) 등 디지털 채널을 정규화함으로써 운영 인프라 측면에서도 종합 증권사급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동시에 정보보안·전자금융·내부망 분리·클라우드 전환 등 컴플라이언스·전산 거버넌스 부담을 키우는 변수이기도 한데, 이 점은 경영지원 직무가 인사·총무·재무뿐 아니라 정보보호·전산기획과의 협업 빈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1-4. ELS·DLS와 변동성 환경, 자체헤지 카운터파티 수요

파생결합증권(ELS·DLS)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국내 자본시장에서 100조원대의 발행잔액을 유지해 온 대형 상품군으로, 자본시장연구원(KCMI)과 KIEP의 보고서가 발행구조·헤지구조 분석을 누적해 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 2024년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자체헤지 비중이 큰 증권사의 마진콜·외화 단기조달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헤지 카운터파티로 기능하는 선물회사의 위탁·중개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변동성 환경 자체도 V-KOSPI·VIX·환율 변동성 등이 주기적으로 확대·축소를 반복하면서 트레이더의 거래대금 베이스가 변동성과 동행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는 회사 손익에 변동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지만 자기매매 손익의 분산이 동시에 커지므로, 경영지원 부문의 예산·KPI 운영은 단기 거래대금 변동을 완충하는 보수적 시나리오 설계를 전제로 합니다.

1-5. 가치사슬 구조와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글로벌 위상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가치사슬은 거래소(KRX), 회원사(증권사·선물회사), 기관·외국인·개인 투자자, 청산·결제(KRX 청산결제본부, CCP)의 4단 구조로 구성됩니다. 거래소는 매매체결과 시장조성·감시 기능을, 회원사는 위탁중개·자기매매·법인 솔루션을, 청산결제본부는 일종·일말 마진콜과 결제 보증을 담당하며, 삼성선물은 회원사 단계의 위탁중개·자기매매·법인영업을 모두 영위하는 종합 라이선스 보유사입니다. 한국파생상품시장은 한때 옵션 거래량 기준 세계 1위(2011년 38억 1,900만 건, 전 세계 27%)에 올랐다가 옵션수수 인상 등 규제 강화로 거래량 순위가 조정되었지만, KOSPI200옵션·미국달러선물·국채선물은 여전히 글로벌 상위권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FIA(미국 선물업협회) 통계 기준 KRX는 거래소별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국내 회원사의 시스템·청산·리스크 관리 역량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발전해 왔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삼성선물 같은 전문회사가 해외 카운터파티(CME·EUREX·SGX·HKEX·LME)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신용·인프라 베이스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1-6. 전업 선물회사 통폐합 흐름과 산업 구조 재편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가 모든 선물·옵션을 겸영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전업 선물회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선물은 NH농협금융지주 계열의 NH선물로 사명이 바뀌었고, KR선물은 2018년 이인혁 전무가 최대주주 지분 23.1%를 인수해 채권중개·증권사 전환 경로를 모색했으며, 메리츠그룹의 메리츠선물은 모회사 메리츠증권으로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2026년 시점에서 국내 전업 선물회사는 삼성선물(삼성증권 자회사), NH선물(舊 우리선물, 1992년 7월 창립, NH농협금융지주 계열), 유진투자선물(1991년 설립, 유진투자증권 자회사) 3사로 사실상 수렴(나무위키 '선물회사' 항목 정리)했고, 종합증권사 파생부문(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이 같은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산업 구조 재편의 부수적 효과로, 전업 선물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해외선물·법인 환리스크·원자재 영역으로 좁혀졌고, 그 결과 종합증권사가 따라잡기 어려운 전문성·24시간 운영·법인 솔루션이 전업사의 핵심

자산으로 굳어졌습니다.

1-7. 규제 환경과 투자자 보호 프레임의 강화

파생상품 영역은 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보호법·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FIU) 등 다층 규제가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사전교육·기본예탁금·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은 신규 투자자 유입을 제약하는 동시에, 회원사로 하여금 표준화된 고객등록·검토·기록 체계를 갖추도록 강제합니다. 금감원의 정기·수시 검사, KRX의 자율규제 점검, 금투협이 표준 가이드라인이 회사 운영 전반에 반영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내부통제·정도경영 인프라는 결국 경영지원 부문의 인사·교육·문서화·감사 대응 업무로 귀결됩니다.

1-8.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 산업 변곡점이 경영지원에 미치는 함의

"왜 종합증권사가 아닌 선물회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야간시장 정식 개시로 글로벌 24시간 거래 인프라가 조성된 점, 환·금리 변동성 확대로 법인 헤지 수요가 증가한 점, ELS·DLS 자체헤지 카운터파티 역할 등 산업적 모멘텀이 모두 선물 전문회사에 우호적이라는 사실로 정리됩니다. 경영지원 측면에서는 야간운영 인력의 근태와 보상 설계, 외화 자금관리, 야간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전산 거버넌스 강화, 다층 규제 대응을 위한 문서·교육·감사 트레이닝 준비가 동시에 요구되며, 이러한 산업 변곡점이 경영지원 직무의 업무 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국내 전업 선물회사 3사의 비교 프레임

국내 전업 선물회사 3사를 비교하면, 삼성선물은 1992년 설립(국제선물), 1995년 삼성그룹 편입, 1997년 사명변경의 경로를 거쳐 모회사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로 운영되며, 본사는 삼성전자 서초 사옥 20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점은 그룹 내부거래(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 등의 환·금리 헤지)를 베이스로 하는 안정적 수수료 수익과 법인 환리스크관리·원자재 영역에서의 전문성입니다. NH선물은 1992년 7월 설립, NH농협금융지주 계열로 본사가 여의도 농협재단빌딩에 위치하며, "24시간 잠들지 않는 NH선물"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외선물·HTS 영역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유진투자선물은 1991년 설립으로 국내 최장수 선물회사이며, 유진투자증권 자회사로서 CME·EUREX·SGX·HKEX·LME 등 해외선물 중개와 자기매매(딜러 운용)를 병행합니다. 이 3사는 자본·인력·고객층이 서로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회사의 정체성과 자금조달 베이스에 따라 강점 영역이 갈리는 구조라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2-2. 사업 포트폴리오 비교와 수익 모델

삼성선물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국내선물·옵션 위탁중개, 해외선물 중개(미국주식·ETF 옵션, 제로데이 옵션, 비철금속 LME, 중국거래소), FX마진, 법인 환리스크관리센터·원자재센터, 외환·FX 일반·금융법인도매, 자기매매(딜링) 등으로 구성됩니다. NH선물은 농협금융 인프라 기반 법인영업과 농산물 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진투자선물은 자기매매 딜링 비중과 LME·CME 해외선물 중개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익 모델 측면에서 보면, 삼성선물은 위탁수수료(국내선물·해외선물·FX), 자기매매 손익, 이자수익(예수금 운용), 외환 매매·환전 마진을 합쳐 매출을 구성하며, 위탁수수료와 이자수익이 안정 수익원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으로, 자기매매 손익이 변동 수익원으로 기능합니다. 이는 모든 선물회사에 공통된 구조이지만, 그룹사 헤지 수요라는 베이스 수요를 갖춘 회사일수록 위탁수수료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2-3. 삼성선물의 그룹 시너지 포지셔닝

삼성선물의 가장 본질적 강점은 삼성그룹 비금융·금융 계열사의 헤지 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비금융사의 외환·금리 헤지,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자산운용 부문 헤지, 삼성자산운용의 ETF·펀드 헤지 트레이드까지 그룹 내부 채널이 안정적 수요로 베이스로 기능합니다. 또한 2014년 9월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 그룹 통합 트레이딩·미들오피스·리스크관리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종합금투자급 IT·리스크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그룹 시너지는 한 번 형성되면 경쟁사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자산이며, 회사가 위기 국면에서도 일정 수준의 베이스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2-4. 자기자본·연봉·인력 측면의 외부 평가 비교

캐치(Catch) 등 채용정보 플랫폼은 삼성선물을 재무평가 상위 2%로 분류하면서 평균연봉 약 1.1억원, 초봉 약 5,000만원 수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종 NH선물의 평균연봉은 약 7,300만원, 초봉 약 4,500만원, 유진투자선물은 평균 약 5,800만원, 초봉 약 4,125만원으로 게시되어 있어, 삼성선물의 보상 수준이 동종 전업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룹 평균 보상 수준과의 정합성, 모회사 삼성증권 보상체계와의 연동, 그룹 내부거래 수익 베이스에 따른 안정적 자기자본 운영 등이 종합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인 만큼 정확한 자기자본·총자산·임직원 수치는 DART 사업보고서 원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며, 본 리포트에서는 외부 플랫폼 수준의 보수적 인용에 그칩니다.

2-5.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2025년 12월 8일 김인 부사장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본 리포트 시점 가장 최근의 인사 이벤트입니다. 행정고시 37회,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EBRD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삼성화재 기획팀장(상무), 삼성증권 기획실장(부사장)을 거친 이력이 이데일리·머니S·이비엔·아시아에이·이코노미톡뉴스·베타뉴스·더센뉴스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6월 9일 KRX 자체 야간시장 개시에 따른 회원사 운영체계 정비, 즉 거래시간 18:00~익일 06:00 단일 계좌 정규/야간 통합 운영, 회원사 자체 시스템 직접 연계 등이 회사의 24시간 콜센터·야간 인바운드 인력 채용과 연결되었고, 과거 채용 히스토리에서도 '전문 계약직(야간) 사원' 모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월 자 임원인사에서는 김태영 전무 신규 선임, 고영균 상무 승진이 디지털데일리에 의해 보도되었으며, 이는 2023년 12월 김선 대표 취임 흐름과 함께 회사의 임원 라인업이 꾸준히 갱신되어 왔음을 보여 줍니다.

2-6. 리스크 측면의 포지셔닝

시장 변동성 확대(VIX·V-KOSPI 상승)는 단기 중개 거래대금에 우호적이지만, 거래소·금감원 차원의 투자자 보호 규제 강화(파생상품 사전교육·기본예탁금·적합성원칙)는 신규 개인투자자 유입을 제약합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이슈, 보험업법 개정안 등)은 모회사 삼성증권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권 전반의 디지털 사고·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내부통제 사고 트렌드는 2020년대 들어 평판 리스크의 비중을 키워 왔으며, 이는 경영지원 부문의 정도경영·내부감사·자금세탁방지·정보보안 업무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7. 산업 내 위치와 경영지원 함의

종합하면 삼성선물은 자기자본·인력·보상 수준에서 국내 전업 선물사 중 최상위로 평가되며, 그룹 시너지 기반 안정 수익과 정책 출신 CEO 영입을 통한 컴플라이언스·전략 강화라는 두 측면에서 차별화됩니다. 경영지원 부문 입장에서는 회사가 누리는 안정성과 규모가 인사·예산·결산·IR 사이클을 모회사 표준에 맞춰 정밀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로 귀결되며, 이는 일반 중견 금융회사 대비 업무의 정확도·납기·문서화 수준이 더 높게 요구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회사 개요와 연혁의 의미

삼성선물의 연혁은 단계별로 구체적입니다. 1992년 11월 '국제선물'로 설립, 1995년 8월 삼성그룹 인수, 1997년 2월 '삼성선물'로 상호 변경, 1998년 12월 선물거래업 재정경제부 본허가, 1999년 4월 국내선물 취급 개시, 2004년 8월 증권업 겸영 허가, 2008년 11월 자본시장법 관련 금융위 재인가, 2014년 9월 삼성증권 지분 100% 인수, 2019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본사 이전, 2023년 12월 김선 대표 취임, 2025년 12월 김인 대표 취임의 흐름이 그것입니다(위키백과 '삼성선물' 항목 정리). 사업자등록번호는 104-81-26558. 이러한 연혁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① 회사가 그룹 편입 이전부터 선물업 라이선스를 가진 베테랑이라는 점, ② 자통법 도입(2009년)을 전후해 증권업 겸영 인가까지 확대해 종합 라이선스 베이스를 갖춘 점, ③ 2014년 모회사가 100%를 보유하면서 그룹의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된 점, ④ 2019년 이후 본사 이전으로 그룹 본진과의 운영적 통합 수준이 한층 깊어진 점입니다.

3-2. 사업 구조와 매출 구성

공식 사업영역은 인크루트에 등재된 회사 사업 목적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물거래·해외 선물거래의 자기매매 및 위탁중개·주선·대리. 둘째, 선물거래 관련 전산용역. 셋째, 국내외 선물시장 정보수집·제공. 넷째, 출판·교육서비스. 다섯째, 현물거래 및 중개. 여섯째, 국내외 간접투자증권 판매. 일곱째, 해외 선물업무. 여덟째, 증권·신용카드·보험·은행 등과 제휴한 금융업무. 매출 구성은 위탁수수료(국내선물·해외선물·FX), 자기매매 손익, 이자수익(예수금 운용), 외환 매매·환전 마진 등으로 나뉘며, 회사 IR 자료 상 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미공개입니다. 업계 관례상 위탁수수료와 이자수익이 베이스 수익원으로, 자기매매 손익이 변동 수익원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3-3. 최근 실적과 재무 프로파일

캐치(Catch) 등 채용정보 플랫폼은 삼성선물을 재무평가 상위 2%로 분류하고 평균연봉 약 1.1억원, 초봉 약 5,000만원 수준으로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종 NH선물·유진투자선물을 상회합니다. 자기자본·총자산·영업수익·당기순이익의 정밀 수치는 DART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므로, 본 리포트에서는 "그룹 모회사 삼성증권의 100% 자회사로서 별도공시 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사실관계와 "캐치·사람인·인크루트 등 외부 평가에서 재무건전성 상위 그룹"이라는 수준의 정보로만 기술합니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다. 외형 측면의 안정성은 변동성 큰 선물업의 특성과 그룹 베이스 수요의 균형이 만들어 낸 결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충격에서도 자기자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적 운영 원칙이 작동해 왔다는 점이 외부에 알려져 있습니다.

3-4. 전략 방향과 CEO 메시지

2025년 12월 신임 김인 대표 선임 보도를 종합하면 회사가 강조한 키워드는 ① 정책·국제금융·민간 금융을 두루 갖춘 리더십, ② 그룹 내 전략·기획 보직 경험을 통한 조직 운영력, ③ 향후 전략 방향과 조직 운영의 전면 재정비입니다(이코노미톡뉴스·아시아에이·머니S 보도). 이러한 메시지는 모회사 삼성증권 박종문 사장 체제와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선물) 차원의 디지털·글로벌·리스크관리 통합 어젠다와 정렬되며, 정책당국과의 소통 라인이 한층 선명해진 셈입니다. 신임 CEO의 출신 배경은 회사가 향후 몇 년에 걸쳐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인프라 고도화, ㉡ 야간시장·해외선물 영역의 정책·규제 변화 선제 대응, ㉢ 그룹사 헤지 수요와 외부 법인 시장의 균형 잡힌 확장이라는 세 갈래로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5. 차별화 포인트의 구체적 분해

첫째, 그룹 브랜드와 신용입니다. 삼성그룹 5대 핵심가치(인재제일·최고지향·변화선도·정도경영·상생추구)를 공유하며, 글로벌 카운터파티 신용도 측면에서 외국계 기관 대비 동등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해외선물 중개·외환 도매 영역에서 결정적 자산입니다. 둘째, 그룹사 내부거래 베이스입니다. 2025년 기준 삼성전자 매출 333조원 규모의 글로벌 매출에 따르는 외환 헤지 수요, 삼성생명·화재의 운용자산 헤지 수요, 삼성자산운용의 ETF·펀드 헤지 수요가 안정적 수수료를 형성합니다. 셋째, IT 시스템입니다. HTS·MTS·다운로드센터, 24시간 운영 고객센터(02-3707-3699), 비대면 계좌개설, 인증서 관리, FDM 재무현황공시 등 디지털 인프라가 종합금융사 수준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넷째, 리서치 역량입니다. Daily/Monthly 시황, Market Unboxing, 리서치 이슈픽, 나스닥 투자전략(Teyvat) 등 자체 콘텐츠가 정기 발간되며, 이는 법인·기관 고객 대상 영업의 보조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3-6. 리스크 요인의 구조적 분해

첫째, 시장 리스크입니다. 변동성 축소 국면에서는 거래대금과 수수료가 동반 감소하므로, 회사 손익이 시장 환경에 일정 부분 노출됩니다. 둘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핀테크·로보어드바이저·해외 ATS의 가격 경쟁이 위탁수수료를 압박하며, 종합증권사 파생부문도 동일 운동장에서 경쟁합니다. 셋째,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리스크입니다. 과거 KR선물의 자기자본 미달 경고 사례에서 보듯, 자기자본·NCR·유동성비율 관리에 한 번 균열이 생기면 회사 전체의 영업 라이선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모회사·그룹 리스크입니다. 모회사 삼성증권과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동(보험업법 개정,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 이슈 등)이 간접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ELS·DLS 자체헤지 카운터파티로서 대규모 손실 사건 발생 시 평가손익 변동성이 회사 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7. 그룹 통합 어젠다와 회사의 위치

삼성금융네트웍스 협의체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삼성선물 6개사로 구성되며, 각 사가 보유한 고객·상품·인프라를 연결해 통합 자산관리·리테일·법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그룹 차원의 전략을 공유합니다. 삼성선물은 이 협의체 내에서 파생상품·외환·해외선물 영역을 담당하는 사실상 유일한 회원사로서, 다른 5개사의 헤지·자산배분·외환 솔루션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

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성은 단기 손익보다는 중장기 그룹 통합 시너지 차원에서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이며, 경영지원 부문 또한 6개사 협의체 차원의 인사·재무·정도경영 표준에 발맞춘 운영 사이클을 유지해야 합니다.

3-8. 회사의 본사 위치와 운영 거버넌스

2019년 10월 본사 이전 후 삼성선물은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 서초사옥 20층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빌딩에 그룹 본사 기능 일부와 다수 그룹사 임원·기획 라인인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운영 거버넌스 측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보고·결재·인사·예산 사이클이 그룹 본사와 같은 호흡으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환경적 조건이며, 경영지원 부문이 모회사·그룹사와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빈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삼성그룹 5대 핵심가치의 공식 정의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공유하는 핵심가치로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삼성증권·삼성SDS·삼성전자 모두 동일 가치체계를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인재제일은 인재가 모든 가치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명제로, 채용·육성·평가·보상의 모든 결정에 우선합니다. 최고지향은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지향하는 도전 정신, 변화선도는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자기변신을 거듭하는 적극성, 정도경영은 컴플라이언스·윤리·법규 준수의 보수적 운영, 상생추구는 협력사·고객·사회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가치체계입니다. 삼성의 인재상은 "창의·열정·소통의 가치창조인"으로 정리되며, 일에 대한 열정과 자기주도 학습, 공감적 소통과 개방적 협업이 강조됩니다(서울경제 '사람이 미래다' 기획기사).

4-2. 삼성선물의 윤리경영·핵심가치

삼성선물은 자체 홈페이지(회사소개 > 윤리경영)에서 핵심가치, 경영원칙, 윤리강령, 부정제보의 4개 영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모회사 삼성증권의 경영원칙(인재제일·최고지향·변화선도·정도경영·상생추구)을 동일하게 채택합니다. 정도경영(컴플라이언스), 자금세탁방지(AML), 내부거래 사전검토 등 금융투자업 특유의 통제 가치가 추가되어 있고, 부정제보 채널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내부 신고 시스템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도경영을 형식적 슬로건이 아니라 운영 인프라로 구체화해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4-3. 금융·증권·파생상품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첫째, 정확성과 꼼꼼함입니다. 1bp 차이가 손익으로 이어지는 도메인 특성상 숫자·문서·전표 오류에 무관용 원칙이 작동합니다. 둘째, 컴플라이언스 마인드입니다.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신용정보법 등 다층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떤 행위가 어디서 어긋날 수 있는지를 예민하게 인식하는 사고가 요구됩니다. 셋째, 데이터·통계 친화도입니다. 거래대금·VaR·민감도 지표·NCR·유동성비율 같은 정량 지표가 경영판단의 베이스로 작동하므로, 숫자의 의미를 읽어 내는 능력이 평가됩니다. 넷째, 리스크 감수성입니다. 거래·운영·시스템·법규 리스크의 원천을 인식하고, 사전 차단과 사후 대응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고방식이 강조됩니다. 다섯째, 엑셀·파워포인트·SAP·ERP 같은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도구 친화도입니다. 결산·예산·KPI 모델링·기안문 작성·보고 자료 제작이 일상 업무이므로, 도구 활용력은 본질적 자산입니다.

4-4. 경영지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소프트스킬

다부서 협업이 일상입니다. 프론트(트레이더·세일즈), 미들(리스크·운영), 백(결제·회계) 사이의 의사소통과 조율은 경영지원의 핵심 업무이며, 부서 간 이해관계와 KPI 차이를 조정하면서 회사 전체의 손익과 통제를 유지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문서화와 보고서 작성 능력은 금감원·KRX 보고, 모회사 IR, 이사회 자료에 일관되게 요구됩니다. 이해관계자 조율 능력은 모회사 본사 인사·재무팀, 외부 회계·노무·법무법인, 거래은행과의 협업에서 발휘되며, 보안의식은 고객정보·매매정보·내부정보의 차이니즈월을 운영하는 회사의 본질적 요건입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는 해외선물 중개 파트너(CME·EUREX·SGX·HKEX·LME) 응대와 글로벌 보고에서 유효한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4-5. 조직 문화의 단상

삼성 공통의 그룹 입문교육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약 2주에 걸쳐 진행되며, 신입 간부·임원 연수 과정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직급 통폐합과 수평적 호칭, 직급별 체류연한 폐지 등 인사혁신 흐름이 삼성선물에도 적용되며, 그 결과 회사 내부 호칭과 보고 문화는 종전 위계형 구조에서 일정 부분 수평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금융투자업 특성상 컴플라이언스·리스크 통제는 보수적이며, 야간운영·딜링룸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됩니다. 그룹 차원의 정도경영(부정제보·내부감사) 규율이 일상 업무에 깊이 반영되어 있고, 이는 신입사원이 입사 초기부터 익숙해져야 할 운영 환경입니다.

4-6. 보상·복리후생 환경

캐치 등 외부 채용 플랫폼이 제시하는 평균연봉 약 1.1억원, 초봉 약 5,000만원 수준은 동종 전업사 대비 상위에 자리합니다. 보상 체계는 모회사 삼성증권의 인사 가이드라인과 정합되며, 그룹 차원의 성과 평가·보상 표준이 반영됩니다. 복리후생은 그룹 공통의 의료·자녀학자금·복지카드·휴양시설·임직원 대출 등이 적용되며, 본사가 삼성전자 서초사옥 20층에 위치한 만큼 그룹 본진의 인프라(식당·카페·체력단련장 등)를 함께 활용합니다. 이러한 보상·복리 수준은 인재제일 가치를 운영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며, 동시에 인재 유출을 줄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4-7. 인사혁신 트렌드와 조직 운영

삼성그룹은 2010년대 후반부터 직급 통폐합, 직급별 체류연한 폐지, 평가·보상의 직무·역량 중심 재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삼성선물에도 적용되며, 신입사원이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잠재력에 따라 조기 발탁이 가능한 구조가 운영됩니다. 동시에 정기 임원인사(매년 12월~1월)에서는 그룹 차원의 인사 사이클이 회사 인사 사이클과 정합되며, 경영지원 부문이 그 사이클의 실무 운영을 담당합니다. 인사혁신은 인재제일·변화선도라는 두 가치를 운영적으로 결합하는 영역이며, 경영지원 부문이 회사의 변화선도 역량을 매년 시험받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4-8. 도메인이 만들어 내는 사고방식

정도경영·컴플라이언스가 일상화된 회사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사고방식은 일반 산업과 다릅니다. 어떤 행위가 어디서 규제와 충돌할 수 있는지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행위 이전에 사전 검토와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이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회사가 한 번의 사고로 영업 라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이선스를 잃을 수 있는 도메인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자산입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회사 전체에 확산시키고, 관련 교육·매뉴얼·점검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증권사·선물회사 경영지원의 직무 범주

경영지원(Corporate Support / Management Support)은 통상 6개 하위기능을 포함합니다. 첫째, 인사 부문은 채용·평가·보상·HRD·노무를 다룹니다. 둘째, 총무 부문은 자산·시설·구매·법인차·임직원 복지를 운영합니다. 셋째, 재무·회계 부문은 결산·자금·세무·IR·공시를 담당합니다. 넷째, 경영기획 부문은 예산·전략·KPI 관리·중장기 계획을 다룹니다. 다섯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리스크·법무 부문은 정도 경영의 운영 인프라를 책임집니다. 여섯째, 홍보·대외협력 부문은 언론·당국·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슬림한 선물회사 특성상 한 사람이 인사·총무를 겸직하거나, 재무회계와 경영기획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5-2. 일·월·분기·연 단위 업무 사이클

일 단위로는 일일 영업보고, 자금일보, 콜·당좌 자금관리, 일일 KPI 트래킹이 운영됩니다. 월말에는 월 결산, 월별 손익보고,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집계, 월별 위험노출액(VaR) 모니터링 보조, 인건비 정산이 수행됩니다. 분기 단위에서는 분기 실적 마감과 모회사(삼성증권) 연결 패키지 송부, 영업용순자본 비율(NCR)·자기자본 한도 관리 데이터 제출, 이사회 자료, 금감원 업무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반기·연 단위에서는 반기·사업보고서 DART 공시, 외부감사인 감사 대응, 정기 임원인사(매년 12월~1월), 정기 평가·보상, 연말 폐장(2024년 기준 12월 30일)·연초 개장(2025년 기준 1월 2일) 운영, 채용시즌(상반기·하반기 그룹 공채 연동) 등이 한 해의 사이클을 구성합니다. 사이클의 안정적 반복이 회사 운영의 기반이며, 경영지원 부문은 이 반복을 무사고로 이어 가는 책임을 집니다.

5-3. 내부 이해관계자 맵

내부 이해관계자는 네 분류로 구성됩니다. 첫째, 프론트오피스로서 국내선물·해외선물·FX·법인영업 트레이더와 세일즈 인력이 있습니다. 둘째, 미들오피스로서 리스크·준법감시·자금세탁방지 부서가 자리합니다. 셋째, 백오피스로서 결제·회계·전산이 운영됩니다. 넷째, 경영진으로서 대표이사·전무·상무가 의사 결정 라인을 형성합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 네 계층을 가로질러 인사·예산·KPI·결산·IR을 통합 운영하며, 부서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회사 전체의 손익과 통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5-4. 외부 이해관계자 맵

외부 이해관계자는 더 다층적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검사·인가·정책 채널입니다. 둘째, 한국거래소(KRX) 파생상품·청산결제본부는 거래·청산·자율규제 채널입니다. 셋째, 금융투자협회(KOFIA)는 표준 가이드라인·자율 교육의 채널입니다. 넷째,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증권 보관 채널입니다. 다섯째, 외부감사 회계법인은 정기 감사·세무 자문 파트너입니다. 여섯째, 노무·법무법인은 인사·노동·법규 자문 파트너입니다. 일곱째, 거래은행은 예수금 신탁·외화 자금조달 채널입니다. 여덟째, 모회사 삼성증권 본사 인사·재무·전략실은 그룹 차원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아홉째, 삼성금융네트웍스 협의체(생명·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선물 6개사)는 그룹 차원의 정책·표준 협의 채널입니다.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널리입니다. 열째, 해외 청산회원·중개사(CME·EUREX·SGX·HKEX·LME)는 글로벌 거래·청산 파트너입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들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기 보고·교류·문서화를 책임지며, 한 채널의 누락이 회사 전체의 운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5-5. 필요 역량 — 하드 스킬

첫째, 회계·재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K-IFRS, 금융업 계정과목, 파생상품 회계처리(FVPL/FVOCI/AC 분류), 헤지회계, 외화환산 등이 핵심 영역입니다. 둘째, 법규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동법(근로기준법·산재보상보험법), 자본시장법(영업·인가·내부통제),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상 업무에 반영됩니다. 셋째, 도구 활용력이 필요합니다. 엑셀(피벗·VLOOKUP·재무모델링), SAP/ERP, 내부 결산시스템, 보고서·기안문 작성 도구, 영어 이메일 작성·번역 등이 일상 도구입니다. 넷째,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래대금·VaR·NCR·유동성비율 같은 정량 지표가 회사 운영판단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므로,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다른 부서에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5-6. KPI와 평가 포인트의 추론

공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 증권·선물업 경영지원 KPI는 첫째 결산 정확도와 납기, 둘째 예산 편성·집행률, 셋째 채용 충원율과 이직률, 넷째 컴플라이언스 사고 건수(0건 지향), 다섯째 외부감사·금감원 검사 무지적 여부, 여섯째 NCR·유동성비율 등 건전성 지표 보조 관리, 일곱째 비용 효율화 프로젝트 성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회사 경영지원 부문도 유사한 KPI 체계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룹 차원의 표준 KPI(인재제일·정도경영·변화선도 관련 평가 항목)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7. 가상 워크플로우 — 월말 결산

월말 결산은 D-3, D-2, D-1, D, D+1, D+2의 단계별 흐름으로 운영됩니다. D-3에는 부서별 분개 마감과 미정리 전표 점검이 진행됩니다. D-2에는 부서별 전표 검증, 회계법인 사전 점검, 환율·금리 환산 확정 작업이 수행됩니다. D-1에는 결산 시산표 점검과 손익 변동 요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D에는 결산이 확정되고 손익보고서가 작성됩니다. D+1에는 모회사 연결 패키지가 제출되며, 그룹 차원의 통합 결산이 진행됩니다. D+2에는 이사회·경영진 보고와 차월 예산 가이드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클은 매월 무사고로 반복되는 것이 핵심이며, 한 번의 오류가 분기·연간 결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지원 부문의 정확도는 회사 전체의 신뢰 기반입니다.

5-8. 가상 워크플로우 — 분기 IR

분기 IR은 거래대금·시장점유율·수수료율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됩니다. 이어 손익·재무상태표 작성, 모회사 IR팀과의 메시지 정합성 확인, 외부공시(DART), 보도자료 배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상장 회사인 만큼 일반 투자자 대상 IR 빈도는 낮지만, 모회사 삼성증권의 분기 실적 발표 주기에 맞춰 그룹 차원의 통합 IR 메시지가 정렬되며, 본 회사의 데이터가 그룹 IR의 일부로 인용됩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 정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 손익의 의미를 그룹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매분기 반복됩니다.

5-9. 가상 워크플로우 — 신입 채용 프로세스

신입 채용 프로세스는 직무 정원 산정에서 출발합니다. 이어 공고 게시(삼성커리어스·회사 홈페이지), 서류 접수와 평가, 직무적합성 평가, 직무적성검사(GSAT), 면접, 건강검진, 입사·OJT의 순으로 진행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경영지원

되며, 그룹 공채 일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경영지원 부문은 이 사이클을 그룹 본사 인사팀과 협업해 운영하며, 회사 차원의 직무 가이드와 채용 기준을 매 시즌 업데이트합니다. 채용 인력의 질은 회사의 향후 5~10년의 운영 베이스를 결정하므로, 인재제일 가치가 운영적으로 시험받는 핵심 영역입니다.

5-10. 가상 워크플로우 — 야간시장 운영 지원

2025년 6월 자체 야간시장 개시 이후 회사 운영은 24시간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야간 콜센터·시스템 모니터링 인력의 근태와 수당 설계, 24시간 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야간 사고 시 비상연락망 가동, 야간 운영 인력의 안전·복지 보장은 모두 경영지원 부문의 책임 영역입니다. 야간시장 운영의 안정성은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경영지원 부문이 24시간 인프라의 후방을 어떻게 설계·운영하느냐가 향후 몇 년 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5-11. 직무의 본질 — 회사의 손익과 위험을 숫자로 그리는 컨트롤 타워

경영지원 부문은 외형은 백오피스이지만, 본질은 회사의 손익 구조와 위험 한도를 숫자로 그려 내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야간시장 도입, 신임 CEO 취임,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어젠다 등 외부 변수가 본 직무의 인사·예산·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서 간 이해관계 조율과 그룹 표준 정렬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본 직무의 가치는 회사가 잘 굴러갈 때보다 위기 국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회사소개 | 삼성선물 — https://www.ssfutures.com/ssf/company/main/CPI_01001.jsp
2. 삼성선물 -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84%A0%EB%AC%BC>
3. 삼성선물, 김인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데일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3286642396552&mediaCodeNo=257>
4. 삼성선물, 김인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비엔)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0095>
5. 삼성선물, 김인 전 삼성증권 부사장 대표로 선임 (머니S) —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120814421872299>
6. 삼성선물, 김인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아시아에이)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96>
7. 금융·정책·글로벌 경험 두루 갖춘 리더 선임 (이코노미톡뉴스) —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80>
8. 삼성선물, 김인 부사장 대표이사 선임 (베타뉴스) —

-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512080061>
9. 삼성전물 새 대표 (더센뉴스)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349>
10. 삼성전물, 2024년 임원 인사 (디지털데일리) —
<https://m.ddaily.co.kr/page/view/2023122913133355981>
11. 삼성, 2026년 상반기 공채 실시 (Samsung Newsroom) —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2026%EB%85%84-%EC%83%81%EB%B0%98%EA%B8%B0-%EA%B3%B5%EC%B1%84-%EC%8B%A4%EC%8B%9C>
12. 삼성, 2025년 하반기 공채 실시 (Samsung Newsroom) —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2025%EB%85%84-%ED%95%98%EB%B0%98%EA%B8%B0-%EA%B3%B5%EC%B1%84-%EC%8B%A4%EC%8B%9C>
13. SAMSUNG CAREERS — <https://www.samsungcareers.com/>
14. 2026년 삼성전물 채용 기업정보 (인크루트) —
<https://www.incruit.com/company/1682463475/>
15. 삼성전물 채용 기업정보 (캐치) — <https://m.catch.co.kr/Comp/CompSummary/607240>
16. 삼성전물(주) 채용 히스토리 (잡코리아) —
<https://www.jobkorea.co.kr/company/1914462/recruit>
17. 삼성/관계사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2%BC%EC%84%B1/%EA%B4%80%EA%B3%84%EC%82%AC>
18. 선물회사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4%A0%EB%AC%BC%ED%9A%8C%EC%82%AC>
19. NH선물 회사소개 — <https://ir.futures.co.kr/>
20. NH선물 - CME Group 소개 — <https://www.cmegroup.com/ko/tools-information/find-a-broker/nh-futures.html>
21. 유진투자선물 — https://www.eugenefutures.com/main/CO/view/CO_0101_P1.htm
22. 유진투자증권 - 기업현황 (와이즈리포트) —
https://comp.wisereport.co.kr/company/c1010001.aspx?cmp_cd=001200
23.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A%B5%AD%EA%B1%B0%EB%9E%98%EC%86%8C_%ED%8C%8C%EC%83%9D%EC%83%81%ED%92%88%EC%8B%

